

권소원 개인전 “melo 멜로”

일정: 2012.11.1(목) - 12.14(금)

장소: 갤러리 시몬(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35-9)

문의: T. 549-3031, 720-3031 F. 549-3032

mail@gallerysimon.com www.gallerysimon.com

이미지 및 보도자료: Webhard ID: gallerysimon PW: simon
(guest 폴더 내 권소원개인전_melo멜로)



갤러리 시몬에서는 가부장 체계에서 주변화 된 여성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공간과 젠더(gender)의 의미를 탐구해 온 코리안 아메리칸(Korean-American) 여성작가인 권소원의 개인전 “melo 멜로”전을 11월1일(목)부터 12월 14일(금)까지 개최한다.

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권소원은 캘리포니아 대학 및 프렛 인스티튜트 대학원을 졸업 후 현재 버몬트 칼리지(Vermont College of Fine Arts, Montpelier, VT)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. 작가는 2000년 휘트니 미술관에서의 개인전을 비롯, 해외에서 일곱 여 회의 개인전과 광주 비엔날레(2000), 요코하마 트리엔날레(2001) 등 수많은 단체전, 국제전에 참가하며 국제적인 평가와 더불어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.

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“melo 멜로”라는 주제를 영상설치, 컴퓨터 애니메이션, 드로잉과 판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선보인다. 작가는 디지털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여성의 육체를 추상화 하여 개인적이며 성의 차이에 주목한 시선에서 변형의 은유를 표현하는 작업을 선보여 왔다.

gallery **simon**

이번 전시에서는 더 나아가 일반화 된 사회적, 문화적 맥락에서 변형 그 자체를 표현하고 있다. 낯설지만 아름다운 선 드로잉은 육체에 대한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고 이는 재현에 대한 적절한 은유이자 재현의 대상이 통제와 통제불능 양자의 상태에 놓이는 방식을 동시에 표현한 것이기도 한다.

작가는 멜로 드라마에 흔히 등장하는 업어주는 장면을 선 드로잉을 이용한 애니메이션 영상작업으로 보여준다. 멜로라는 장르의 전형적인 전개가 얼마나 감성적이고 억지이며 동시에 얼마나 가식적인 순정인지를 말함과 동시에 멜로 드라마의 그러한 과장됨을 기다리는(바라는) 것을 멈출 수 없는 관람자로서의 마음을 작가의 재치를 더해 보여준다.

3층 전시장에서는 네온과 음악을 사용한 영상설치 작업이 전시되어 있다. 기원을 알 수 없을 만큼 오래된 뱃노래 “쇄난도”가 흘러나오고 네온은 노래의 가사를 빛으로 보여준다. 작가는 긴 세월을 걸쳐 여러 세대의 가수들에게 불리어진 다양한 버전의 “쇄난도”를 통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많은 이야기나 노래들처럼 “쇄난도”도 옛날 노래가 아닌 현재의 우리의 것임을 말한다. 작가는 음악이 한 세대를 확정적으로 규정짓는 방식에 흥미를 느꼈다고 한다. 작가는 작업을 통해 음악이 어떤 훌륭한 그림보다도 더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으며, 우리의 욕망, 우리의 공감 속에는 또한 역사가 들어있다고 말한다.

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인전을 선보이는 작가 권소원의 다음의 행보는 어떻게 전개될지, 예측 불가능하여 더욱 기대되는 작가이다.